

컴퓨터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

— 상 공 부 —

1. 우리나라 컴퓨터산업의 현황분석

1) 컴퓨터산업의 최근 동향

가. 수급현황

(단위: 백만불, %)

구 분	'89		'90		'91.9	
	수출(A)	증가율	수출(B)	증가율	수출(C)	증가율
수요	2,042	8.7	1,984	-2.8	1,469	2.6
내수	2,157	55.7	2,315	7.3	1,819	4.8
계	4,199	28.6	4,299	2.4	3,288	3.8
공급	1,002	20.1	1,100	9.8	1,009	28.1
생산	3,197	31.5	3,199	0.1	2,279	-5.0
A - B	1,040		884		460	

국내 컴퓨터 산업은 생산측면에서 개인용컴퓨터와 주변기기위주의 생산으로 '90년 이후 급격히 성장이 둔화되었다. 이것은 양적성장애 치우친 국내 PC산업이 임금인상, 선진국기술 보호주의, 핵심부품 수입의존 등에 대한 적절

한 대응이 부족한 것에 기인한다. 따라서 앞으로는 PC의 고성능화, 대용량화, 소형·경량화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전략마련이 절실하다.

수출측면에서는 '91년 상반기이후 32bit PC, 노트북 PC 등 고성능·휴대용 PC의 개발·생산으로 본체 수출비중이 증가('90년 32% → '91년9월 34.4%) 했으나 미국시장위주의 수출구조로 최근에는 비중이 감소추세에 있다('90년 54% → '91년 49%).

수입측면에서는 국내생산이 곤란한 중·대형 컴퓨터와 PC 완제품생산을 위한 보조기억장치 등 주변기기 위주의 수입구조가 형성되고 있는데, 본체의경우 미국(53.3%), 주변기기의 경우 일본(30.0%)에 수입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.

나. 투자현황

(단위: 억원, %)

구 분	'89	'90	'91계획	증가율	
				'90/'89	'91/'90
계	1,649	3,393	4,825	105.5	42.1
시설투자	1,038	1,907	2,777	92.0	38.9
연구개발	611	1,396	2,048	128.5	46.7
매출액중 비중	4.8	8.6	-	-	-

○'89년 이후 산업경쟁력 약화를 극복키 위해 기술개발투자 지속적 증대

—삼성전자의 경우 매출액의 13% 수준의 R & D투자

○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R&D센터(미국, 일본)

편집자주 : 최근 국내 컴퓨터산업은 세계 경기의 침체와 선진국의 기술보호정책 등 어려운 여건으로 인하여 성장속도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. 이에 본고는 상공부에서 국내 컴퓨터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제도약을 마련코자 수립한 컴퓨터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요약 발췌한 것임을 밝힌다.

를 통한 기술개발투자 확대

- 선진국기업(미국 HP 등)과의 공동개발투자 확대

다. 인력현황

(단위: 천명)

구 분	계	H/W인력	S/W인력	지원인력
'89	35	15	8	12
'90	41	17	10	14

- 연구개발투자와 병행하여 전문기술인력 증대

- '89년 대비 17.6% 증가('89/'88 증가율 1.2 %)

- H/W의 경우 연구개발직(48.1%), S/W의 경우 시스템 엔지니어(30.9%) 지원인력의 경우 관리직(43.0%)이 급증

라. 기술도입 현황

연 도	계	'81~'85	'86~'88	'89	'90	증 가 율	
						'89/'88	'90/'89
건수	313	54	149	46	64	-22.0	39.1

- 국내 도입현황: 미국 189건(60%), 일본 102건(33%)을 차지

- 분야별 현황: 본체 80건(23%), 주변기기 78건(23%), S/W 119건(35%), 기타 64건(19%) 점유

마. 선진국과의 기술수준 비교

구분	국 내	평가	선 진 국
본 체	-병렬처리, 다중처리 시스템 등의 기초 기초기술개발	20	-메인프레임, 슈퍼컴퓨터 등 다양한 종류의 개발·생산
	-LAPTOP W/S, 노트북 PC 생산초기단계	40	-휴대용컴퓨터 양산 (노트북, 팜탑 PC)
	-핵심부품 설계기술의 선진국 의존	20	-자체 기술개발 및 양산
	주변기기	-레이저프린터 생산 초기	30
-5.25" 80MB HDD생산		40	-3.5" 200MB HDD생산
-14" 0.28mm 칼라모니터 생산		30	-21" FLAT 0.21mm 생산
S/W	-주요시스템 S/W의 기술 도입	20	-인공지능화 및 S/W 생산 자동화
	-OS등의 기초연구단계	20	-호환적 개발환경 구축

- 전반적으로 선진국에 비하여 약 30% 수준의 기술력 보유

2) 국내 컴퓨터산업의 특징

가. 구조적 특징

- 대기업주도의 시장구조

- 협소한 내수시장 여건속에서 성장 초기부터 대량생산을 통한 6대 기업 중심의 시장 구조 형성, 청계천, 용산 등의 중소기업은 대만제 머더보드의 수입을 통한 조립·생산 유통

- 설계능력의 미흡과 고급기술인력 부족

- 중형컴퓨터 설계기술은 정부의 국책과제 사업을 통해 획득 추진

- PC와 주변기기 핵심부품과 시스템 S/W는 아직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에 의존

- 부품·재료산업의 낙후

- 조립수출 성장전략으로 인한 조립가공기업의 대형화 급진전(수입유발계수: '85년 0.56 → '88년 0.54 → '90년 0.49)

- 완제품 생산업체는 부품·재료를 일본 등 선진국에 의존하여 경쟁력 약화(노트북 P C의 경우 80%의 부품을 수입의존)

- 높은 외국자본 기업의 참여

- 합작투자 방법 등을 통하여 기술도입 촉진 IBM, DEC, FUJITSU 등 세계적 다국적 기업이 직접투자를 통해 국내진출

<외국인 투자현황>

구 분	'67~'69	'70~'78	'80~'90	계
투자건수	3	21	112	136
연평균투자건수	1	2.1	11.2	-

나. 성장전략적 특징

- 해외의존적 성장

- 부가가치 창출면에서 국내 기업은 저임·양질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조립에 의한 완제품 또는 반제품 조립에 치중

- R&D, 부품, 유통 및 A/S 등에 대해서도 기술도입, 부품수입, 합작투자 및 OEM 수출에 의존

• 최근 기술도입료, 특허료의 부담가중(매

- 출액의 10% 수준)
 - 부품의 해외 의존도 약 50% 이상
 - 유통 및 A/S는 선진기업의 해외조달전략에 편승·판매
- 집중화된 가격 우위전략 채택 (Focused Cost Leadership)
 - 한정된 기술과 해외마케팅 능력을 보완하고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집중화된 가격우위전략 선택
 - 인적, 물적자원을 다양한 제품 및 모델에 분산시키지 않고 소수 특정제품만을 전략적으로 선별, 투자
 - 전략적 상품선정으로 수출시장이 미국, EC 등 소수국가에 편중

<대만의 경우>

- 중소기업중심의 생산구조의 신속한 의사결정체제와 낮은 간접비 부담으로 신제품개발과 가격경쟁력 선도
- 와제품생산 뿐만 아니라 머더보드와 같은 반제품 및 부품생산에 주력하여 선진국기업과의 직접적인 경쟁회피
 - 머더보드 생산업체 200여개, 생산 10억불 규모로 세계시장선도

2. 국내 컴퓨터산업의 당면과제

1) 개인용 컴퓨터와 주변기기산업의 재도약기반 구축

- 대만산 PC와의 경쟁에 효율적 대처
- 머더보드 등 부품품 전문중소기업의 육성
- 핵심부품의 조기 국산화로 가격경쟁력 회복
- 다국적기업의 지적재산권 공세에 대한 대응

2) 중·대형컴퓨터의 국내개발 및 수요창출

- 대형국책 과제의 지속적 추진으로 핵심기술력 확보
- 국내시장의 수요창출 지원정책의 강구
- 국산컴퓨터 운용인력의 양성

3) 기업의 체질개선 및 정부제도의 보완

- 국내 시장에서의 과당경쟁 지양
- 격변하는 경영환경에 적합한 산업조직의 실현
- 정부 구매제도의 보완 및 관련기관간의 공조체제 확보

3. 경쟁력 제고대책

1) PC 및 주변기기산업의 육성

가. 머더보드의 산업발전기반 조성

- 필요성
 - PC본체 가격의 30~50%를 차지하는 핵심부분품으로서 PC의 경쟁력을 좌우
 - 대만산 저가제품의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 생산업체 보호 및 육성
 - 수출유망품목으로서 고기능화를 통한 수출산업화 및 관련부품산업 병행발전
- 산업현황
 - 수입실태

(단위 : 백만불, %)

구분	'89	증가율	'90	증가율	'91.상	증가율
수요	278	44.0	204	-26.8	112	10.3
생산	263	39.4	176	-33.2	89	1.3
수입	15	243.5	28	86.1	22	62.0
수입점유율	7.1		13.6		23.3	

- 수입원인
 - 가격면에서 대만의 생산업체는 분업화와 자동화설비 및 부품공동구매 등을 통한 양산으로 국산제품에 비해 약 20% 저렴
 - ※ 생산업체수(전문업체)
 - 국내 : 10여개사(수작업의존)
 - 대만 : 200여개사(SMT 자동화설비 보유 : 50여개사)
 - 대만의 전자기술연구소(ERSO)와 정보산업진흥회, 시장정보센터(MIC)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정보지원정책 주효
- 추진방안
 - 전문생산업체의 조직화 및 업계간 협력강화

- 컴퓨터산업협회의내에 수급업체간 머더보드 분과위원회 구성

(위원장 : 태일정밀 정강환 사장)

- 발전정책 수립·대정부건의, 업계간 공동사업추진 등

—업계공동사업의 추진과 행정지원

- 국산 부품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부품공동구매

(해외공급가격수준으로 반도체 등 주요부품을 국내업체에 공급토록 지원)

- 표준화기관 개발, ASIC 및 ROM-BIOS 개발 등 공동연구개발사업 참여

- 국산 머더보드 신제품 공급확대(용산, 세운상가 등)

- 해외 연구디자인센터 설립 등 중·장기 발전대책강구

—생산, 설계기술의 향상을 위한 설비 및 기술개발투자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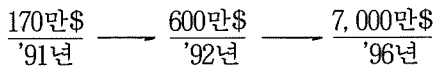
- 향후 5년간('92~'95) 85억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설계 및 생산능력 증대

- 금년에 10억원의 공업발전기금 긴급지원을 통하여 설비개선 및 신제품 개발지원(향후 5년간 매년 20억원씩 총 1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추진)

- 공정자동화율 개선 : 현재 20~30% → 80~90%

○ 기대효과

—수출증대 :



—내수증대 : 연평균 38%씩 증가

(단위 : 억원, 천불)

구 분	'91	'92	'96
생 산	160	320	1,800
수 출	1,730	5,770	67,800
시 판	140	250	780
수출/생산	15%	25%	60%

나. 정부구매제도의 개선

○ 필요성

- 덤핑입찰방지로 유통질서 확립
- 기업의 생산 및 기술개발 의욕고취와 투자

여력 제고

○ 현 황

- 단체수의계약방식의 채택으로 교육용 PC와 행정전산망용 PC용 덤핑입찰 사태는 방지(낮은 조달단가로 인해 일부 중소기업은 계약포기)

- 레이저빔프린터(LBP)등 신제품에 대한 조달청의 최저가 입찰제로 과당경쟁 발생(시 증가 230만원대→낙찰가 120만원대)

- 아직도 중·소규모의 PC입찰에서 덤핑입찰사태가 발생되고 있음

○ 추진방안

- 산업육성차원에서 관련부처간 공동대응

- 상공부, 체신부, 문교부, 총무처, 조달청 등 관련부처간 협의회 구성·운영
- 구매방법과 조달가격 등에 대해 상호 협의 및 협조촉진

- 컴퓨터산업협회를 통하여 업체자율적 조정기능 강화

- 협의회내에서 품목별 가격의 가이드라인 설정(덤핑입찰을 계속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기술개발자금 등 정책금융지원 배제)

- 다수의 중소기업 참여품목의 경우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으로 지정

- 중·장기적으로는 첨단기술제품에 대해서는 정부구매시, 최저가 입찰제를 지양하고, 품질·성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도개선 추진다. 핵심부품 및 고성능주변기기의 개발과

상호구매 활동 강화

○ 필요성

- 소형, 박형화 추세에 있는 PC산업의 경쟁력은 핵심부품의 조기국산화에 좌우

- 핵심부품 대부분 자본·기술집약적이므로 업계의 분담 또는 공동개발 및 상호구매체제 확보 시급

○ 대상품목 <다음Page 도표참조>

○ 추진방안

- 품목별 개발전략의 수립·추진
- 대기업 주도 : LCD, Ni-Cd 전지, LBP

부 품 류	주 변 기 기 류
LCD, ASIC, Ni-Cd 전지, SMPS, 콘넥터, 고해상도 CPT 등	HDD, FDD, ODD 등 보조기억장치 LBP 엔진, INKJET 프린터, 고해상도, 칼라모니터, 스캐너 등

엔진 등

- 중소기업 주도 : SMPS, 콘넥터 등
- 대기업·중소기업 공동 : 다층 PCB, FD D용 부품 등

—업계공동 및 분담개발 체제구축 및 정부지원

- 품목별 연구조합(협의회)의 결성 및 공동/분담 개발 계획 수립
- 동 계획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(공업기반 기술개발자금 등)
- 개발계획 추진실적의 정기적 점검(월 1회)을 위해 품목별로 상공부, 담당계장, 관련연구소,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된 점검팀의 구성·운영
- 개발부품의 성능 및 신뢰성 평가 전담기관 지정(전자부품연구소 등)

라. 첨단신기술제품의 공동개발 추진

○ 필요성

- PC기술의 다양화, 복합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유망제품의 발굴
- 업계 공동개발체제의 확보로 기술개발의 생산성제고

○ 대상품목

- 한국문자인식 OS, 펜 Based PC 및 관련 S/W, 확장형 노트북 PC, 멀티프로세서 PC, 분산처리시스템, 고성능 워크스테이션 등 30여건

○ 추진방향

- 컴퓨터산업협의회내의 기술개발분과위원회에서 각 품목별 개발대상업체 및 협력개발 기관 선정(가능한 한 공동개발사업으로 추진)
- 금년도 공업기반기술 수요조사계획에 포함하여 공업기반기술자금 및 공업발전기금자원(92년 지원규모 : 50억원)
- 컴퓨터신기술공동연구소 등을 적극 활용

하여 산·학협동 촉진

- 세계적인 공동기술개발 및 표준화체제(AC E그룹 등)에 적극적 참여

마. 선진국 지적소유권 보호강화추세에 적극 대응

○ 필요성

- 기술보호주의와 기술의 블록화 현상에 대비
- 기술료의 과대인상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적극 대응

○ 추진방향

- 우루과이라운드의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에서 선진국의 과대 기술료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아국의 입장정립
 - 기술이전에 있어서의 분쟁예방제도 등 제안
- MS, TI사 등 다국적기업의 지적재산권공세에 대한 공동대응 추진
 -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기술도입계약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시정조치
- 컴퓨터 특허협의회를 통하여 업계 공동의 대응방안 마련
 - 전문 변호사 등의 자문을 통한 애로사항 해결창구 역할 수행
- 컴퓨터특허분쟁 대응을 전담할 업계공동의 특허법인 설립 추진

2) 중·대형 컴퓨터의 개발 보급확대

가. 컴퓨터 전문리스(임대)회사의 설립·운영

○ 필요성

- 정보화사회의 발전에 따른 중·대형컴퓨터 수요증대에 대응
- 국산 컴퓨터의 보급확산 및 수입의존도 축소(중형의 경우 97%)
 - 일본의 경우 '60년대 초반에 전담회사(J ECC)를 설립하여 중·대형 컴퓨터의 수입의존율을 7%(90년)으로 축소

○ 추진방안

- 설립개요

- 설립형태 : 리스(임대) 전문 주식회사
- 영업품목 : 국산 중·대형컴퓨터(국산제품의 기준은 상공부에서 고시)
- 자본금 : 30억원(예상)
- 출자자 : 중형컴퓨터 생산 4개사 및 국책은행

—소요자금내역

(단위 : 억원)

구분	'92	'93	'94	'95	'96	계
소요자금	520	940	1,630	2,600	3,350	9,040
조 자체조달	80	210	490	1,060	1,580	3,420
달 정책금융	440	730	1,140	1,540	1,770	5,620

- 자체조달은 영업실적으로 충당, 정책금융은 국민투자기금 등 정부 정책자금 활용

—추진계획

- '91. 11~12 : 재무부 등 관련기관과의 설립 기본방향 합의
- '92년중 : 금융지원방안 결정 및 설립·운영 개시

나. 대형기술개발과제의 지속적추진 및 첨단 기술이전의 촉진

○대상과제

- 중·대형컴퓨터, 슈퍼컴퓨터 및 인공지능(신경망) 컴퓨터

○현황

- 중형급컴퓨터는 주전산기 I (Tolerant 개량기종), 주전산기 II (Ticom)의 개발이 완료되어 금년말 상용화 예정
- 주전산기 III로 활용될 고속중형컴퓨터는 '93년말 개발완료를 목표로 상공부, 체신부, 과기처 공동개발 추진중
- 슈퍼컴퓨터의 경우 KAIST 주도로 8 GFLOPS의 계산능력과 2 GBytes의 메모리용량을 갖춘 KAICUBE III를 '92년말 목표로 개발중(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 지원)
- 인공지능(신경망)컴퓨터 개발은 전자통신연구소 주도로 개발중이며 과기처에서 G7 과제로 선택

○추진방안

—고속중형컴퓨터의 적극적 개발 지원

-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 지원
 - 총소요자금 : 300억원(정부지원 : 110억원)
 - 상공부지원 : 35억원('91~'93)
- 기업(삼성, 금성, 대우, 현대) 주도로 ETRI, 컴퓨터신기술공동연구소 공동개발 추진

—신경망컴퓨터의 개발은 초기부터 국제공동개발 모색

(일본 통산성의 6세대컴퓨터 개발계획과 연계)

—선진국 기업과의 전략적인 제휴 병행추진

- 미국 UNISYS 등 대기업, SEQUOIA 등 벤처기업과 제휴하여 한·미간의 산업협력촉진과 조기수출산업화 추진

—미국 실리콘밸리내에 국내기업을 위한 기술이전 합작회사 설립

- 국내 창업투자회사의 출자 및 ETRI 참여 촉진

다. 국산컴퓨터 전문소프트웨어 인력의 양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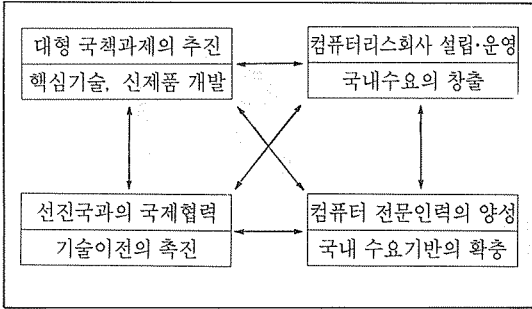
○현황

- 전산전문인력의 교육·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시스템 기종결정 추세
- 외국인 기업은 대부분 자사제품 판매를 위해 자체 교육센터 설치·운영
- 대부분의 전산학원에서는 외국산 중·소형컴퓨터로 교육
- 총무처 전자계산소에서 일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산중형컴퓨터 운용교육 실시
- 컴퓨터기술원에서 국산중형컴퓨터의 운용교육을 추진중이나 민간업계의 전문가 교육 미흡

○추진방안

- 컴퓨터기술원의 교육 및 연구기능 보강
 - 주요 공단별로 국산기종 교육과 정보화 인력양성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 정비('95년까지 2만명의 전문인력 양성)
 - 교육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수강료 등의 정부지원('92년 : 1억 5천만원)

〈중·대형컴퓨터산업 육성체계〉



- 국산 컴퓨터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정보화 연구·지원사업의 확충
- 라. 컴퓨터 수요확충을 위한 제도개선
- 정부내 컴퓨터 도입 심의기능의 강화
 - 전산망조정위원회(체신부) 및 전자계산조직 심의위원회(과기처)에서 국산 컴퓨터 활용 적극 유도
- 산업 및 무역 정보화사업에서 국산기기 사용

촉진

- 중소기업 정보화사업 지원제도 보완
 - 국산대체 가능한 수입제품에 대하여는 지원 배제
 - 국산불가능 제품인 경우도 지원비율 하향조정
- 무역자동화사업 추진시 국산기기 최대활용
 - 지역별로 설치되는 서브시스템의 국산 사용 추진
- 관련부처 및 단체간의 공조체제 강화
 - 상공부, 과기처, 체신부의 차관보급 정책 협의 정례화(월 1회)
 - 국·과장급의 실무협의 활성화로 정보산업정책공조 추진
 - 산하단체간의 협의체 구성으로 민간차원에서 협조체제 확보
 - 약 20개 단체로 구성('91. 10 1차협의 실시)

